

2019학년도 수능대비

# 비문학 EBS Final 1~3강

(EBS 수특, 수완 경제 선별)

---

국어강사 신한종 (국신T)

現 Orbi Class 인강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국어 강사

現 대치이강학원 사관,경찰대 국어 강사

前 비타에듀 외고, 자사고 특강 / 이투스

[저서] 절대(絶對)국어 시리즈

---

Orbi Class

## ■ [EBS 선별1] 수능완성 143P : 포트폴리오 선택과 옵션

경제 분야에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각종 금융 자산의 {구성}을 포트폴리오(portfolio)라고 부른다. 각 자산은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다. 투자자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얼마만큼씩 투자할 것인지 결정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복수의 금융자산들에 대한 분산 투자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 자산의 수익성은 어떤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의 기대치를 뜻하는 기대 수익률에 의해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 전자의 주식이 현재 주당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다음 분기에 15만 원으로 오를 확률이 1/3이고, 9만 원으로 떨어질 확률이 2/3라고 하자. 주가가 15만 원으로 오르면 이를 구입하는 사람은 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9만 원으로 떨어지면 10%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0.5 \times 1/3) + (-0.1 \times 2/3)$ 라는 계산 과정을 통해 구한 수익률의 기대치는 10%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다. 그런데 투자자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은 기대 수익률에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수익률인 세후 수익률이다. 다른 조건이 똑같은 때 세후 수익률이 높은 자산일수록 그것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게 마련이다.

어떤 자산과 관련된 위험성은 수익률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주당 가격이 동일한 주식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5%로 똑같지만, 수익률의 변동 폭이 B가 더 크다면 A보다 B가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좀 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므로, 위험성이 작은 금융 상품일수록 수요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어떤 자산은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추가적 수익률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세 번째 요소는 유동성이다. 유동성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산을 현금으로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 투자자는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냐의 여부가 중요하므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한다.

포트폴리오 선택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 자산에 투자를 분산시킴으로써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투자 다변화만으로 위험을 줄이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파생 금융 상품이다. 파생 금융 상품은 자산의 변동에서 오는 자본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람들과, 적절한 대가를 받고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이를 통해 자본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위험 그 자체를 거래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파생 금융 상품 중 대표적인 것에는 옵션이 있다. 옵션 계약은 미래의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계약을 말한다. 옵션을 산 사람은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옵션 프리미엄\* 50만 원을 지불하고 6개월 후 A 회사의 주식을 주당 10만 원에 100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만약 6개월 후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따라서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될 텐데, 이 경우의 손실은 그가 옵션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50만 원이 된다. 반면에 6개월 후 주식가격이 10만 원을 넘으면 그 옵션을 구입한 사람은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옵션을 행사하여 주당 10만 원의 가격에 구입한 후 더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당초 옵션을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불했으므로 실제로는 주식 가격이 10만 5천 원을 넘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옵션 중에서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고 부른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만기일, 미리 정해진 상품 구입

가격을 권리 행사 가격이라고 한다. 콜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초 자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수록 더 큰 이득을 얻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이를 구입한다. 콜옵션과 대조적으로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구입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풋 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풋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수록 더 큰 이득을 본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그 상품을 구입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가격에 되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 여기서의 '위험'은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의미함.

\*기초 자산: 옵션 계약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 주식, 증권, 상품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옵션 프리미엄: 옵션 구입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

## ■ [읽어읽기(1)] 금융상품

읽어읽기 자료 (배경어휘와 친해지기) [출처 : 오르비박스 '교과서독해']

자산 관리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투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다.

안전성은 원금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을 말한다. 어떤 투자 수단이든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다. 투자의 위험 요소가 많을수록 그 투자 수단의 안전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수익성은 투자로부터 얻는 이익을 말한다. 투자의 최대 목표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 수익이 크면 투자 위험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자산의 속성이다. 따라서 수익성만을 고려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은 필요할 때 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환금성'이라고도 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많은 현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부동산이나 주택과 같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매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매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거래 가격이 높아 팔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유동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급하게 매매를 하게 되면 매우 싼 가격에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 반면, 은행에 예금해 놓은 정기 예금은 아주 간단하게 해약을 할 수 있어 얼마간의 이자 손해만 치르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

☞ **자산의 매매가 어렵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 (유동성이 낮다)고 한다.**

따라서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안전성과 수익성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상품에는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있다.

예금은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한다.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이다. 이에 비해, 저축성 예금은 이자 수입이 주된 목적으로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으로 나뉜다. 정기 적금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 금융 상품이고, 정기 예금은 목돈을 운용하는 것이 목적인 금융 상품이다.

☞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달리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경영 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자가 회사 소유자라는 증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식 투자자(주주)들이 주인이 되어, 소유한 주식에 비례로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 주식에 투자하면 기업의 경영 실적에 따라 많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업이 파산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에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 **주식은 수익률이 높지만 (안전성이 낮은 편이다).**

채권은 정부, 공공 기관, 기업, 금융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증서이다. 예를 들어, 지방 자치 단체가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예산이 없을 경우에 국민에게 \*차용 증서를 파는데, 이를 지방채라고 한다. 또 기업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릴 경우에 기업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 증서이다.**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발행 기관이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현금이 급히 필요하면 채권 시장에서 팔수도 있다. 채권은 주로 정부나 공공 기관, 금융 기관, 신용이 높은 기업 등이 발행하므로 주식에 비해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채권은 원금을 갚게 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에 투자한 돈의 가치가 감소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물가가 오르면 (채권에 투자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닥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면 걱정을 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위험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서로 돈을 모아 공동의 재원을 마련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를 보험이라고 한다. 즉, 보험은 미래에 당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나거나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이다.**

연금은 노후에 대비하는 금융 상품이다. 지정한 날짜에 \*일시불로 받게 되는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연금은 노후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노후 보장의 효과가 강하다. 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과 기업에서 보장해주는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해야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 **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 상품이다.**

#### [수능국어 필수 어휘]

\* 부동산(不動産):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를 말한다.

\* 차용(借用): 돈이나 물건을 빌려 씀

\*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134강 참조)

\* 만기(滿期): 정한 기한이 다 참

\* 일시불(一時拂): 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상환하는 일.

## ■ [읽어읽기(2)] 사관학교 기출 - 옵션 지문

선물 거래는 경기 상황의 변화에 의해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피하려는 사람과 그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A]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이 주변 여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데서 오는 위험에 대비해 3개월 후 수확하는 배추를 채소 중개 상에게 1포기당 8백 원에 팔기로 미리 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계약을 선물 계약, 8백 원을 선물 가격이라고 한다.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은 선물 계약을 맺음으로써 3개월 후의 배추 가격이 선물 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채소 중개상은 왜 이와 같은 계약을 한 것일까? 만약 배추 가격이 선물 가격 이상으로 크게 뛰어오르면 그는 이 계약을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추를 경작한 농민과는 달리 3개월 후의 배추 가격이 뛰어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농민이 우려하는 위험을 대신 떠맡는 데 동의한 것이다.

선물 거래의 대상에는 농산물이거나 광물 외에 주식, 채권, 금리, 외환 등도 있다. 이 중 거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방식이 좀 더 복잡한 외환 즉, 통화 선물 거래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계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의 가격, 즉 달러 환율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 수출입 기업의 경우 뜻하지 않은 손실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달러 선물 시장에서 약정된 가격에 달러를 사거나 팔기로 계약해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미국에서 밀가루를 수입해 식품을 만드는 A 사는 7월 25일에 20만 달러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후인 9월 25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7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US\$이고 9월에 거래되는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05원/US\$이다. A 사는 2개월 후에 달러 환율이 올라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해 선물 거래소에서 9월물 선물 20만 달러어치를 사기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9월 25일이 되자 A 사가 우려한 대로 원/달러 환율은 1,350원/US\$, 9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355원/US\$으로 올랐다. A 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당장 미국의 밀가루 제조 회사에 지급해야 할 20만 달러를 준비하는 데 2개월 전에 비해 1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달러당 1,305원에 사서 1,355원에 팔 수 있으므로 선물 거래를 통해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어 현물 거래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외환 거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 산출	손익
현물	-50원(1,300원-1,350원) × 20만 달러	-1,000만 원
선물	50원(1,355원-1,305원) × 20만 달러	1,000만 원

<표> A 사의 외환 거래로 인한 손익

반대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는 기업의 경우 받은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이므로, 특정한 시점에 달러 선물을 팔기로 계약하여 선물의 가격 변동을 이용함으로써 손실에 대비하게 된다.

① 선물이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약정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한 시점에 사거나 파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있는데 이를 ㉠ 옵션(option)이라고 한다. 계약을 통해 옵션을 산 사람은 약정한 시점, 즉 만기일에 상품을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포기하면 옵션 계약을 할 때 지불했던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의 손실은 발생한다. 만기일에 약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콜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상승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콜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풋옵션을 산 사람은 상품의 가격이 애초에 옵션에서 약정한 것보다 하락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를 통해 가격 변동 폭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이 풋옵션을 판 사람은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선물이나 옵션은 상품의 가격 변동에서 오는 손실을 줄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 내에서 손실 그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노리고 자 하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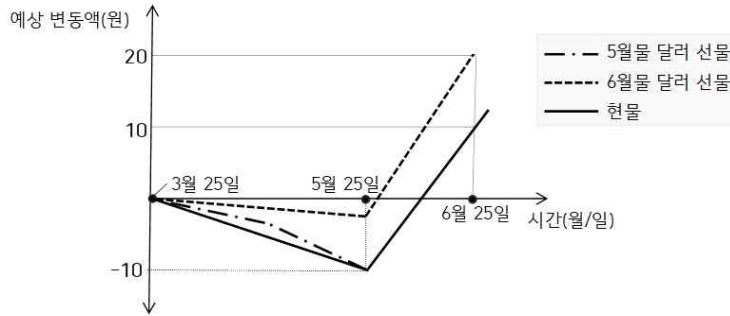
### 32. [A]의 거래 방식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정된 소득을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군.
- ②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동인 것이군.
- ③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전가하는 것이군.
- ④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에 손실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군.
- ⑤ 소득이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거래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군.

34. <보기>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회의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상황 보고서** : 우리 회사는 오늘 3월 25일에 미국 회사에 LCD 패널 1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2개월 후인 5월 25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금융 대응팀에서 여러 경제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3월 25일부서의 환율 및 달러 선물 가격의 변동을 아래와 같이 예측했습니다. 3월 25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50원/US\$이고, 5월물 달러 선물의 가격은 1,260원/US\$입니다.



- 김 대리: 달러 현물 가격의 추이로 볼 때 5월 25일에 현물로 대금을 받는다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네요. .... ㄱ
- 최 과장: 5월 25일에 거래되는 5월물 달러 선물 100만 달러어치를 팔기로 계약한다면 현물로 받은 대금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ㄴ
- 이 차장: 전례가 있으니 미국 회사의 동의를 얻어 대금을 받는 날짜를 1개월 더 늦춰 6월 25일로 연기한다면 굳이 5월물 달러 선물을 계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ㄷ
- 고 대리: 말씀하신 대로 대금을 받는 날짜를 6월 25일로 1개월 더 연기할 수 있다면 현물 거래로도 우리 회사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ㄹ
- 박 대리: 현재 6월물 달러 선물 가격은 1,280원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는 날짜를 1개월 더 연기하고, 6월 25일에 거래되는 6월물 달러 선물 100만 달러어치를 팔기로 계약하면 추가 이익이 발생해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ㅁ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옵션 거래의 대상인 상품 ㉠, ㉡가 계약일에 약정한 가격 대비 만기일의 가격이 ㉠는 상승하였고, ㉡는 하락하였다. 이에 ㉠, ㉡에 대한 옵션을 거래한 사람들은 손익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

- ① ㉠에 대한 콜옵션을 판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 ② ㉠에 대한 풋옵션을 산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 ③ ㉡에 대한 콜옵션을 산 사람은 만기일에 손실을 보았겠군.
- ④ ㉡에 대한 풋옵션을 포기한 사람은 만기일에 이익을 보았겠군.
- ⑤ ㉡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한 사람은 만기일에 손실을 보지 않았겠군.

## ■ [읽어읽기(3)] 평가원 기출 - 보험 지문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후략]

###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서로 같다.



## ■ [읽어읽기(4)] 평가원 기출 - 옵션 지문 (2006 수능)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A]【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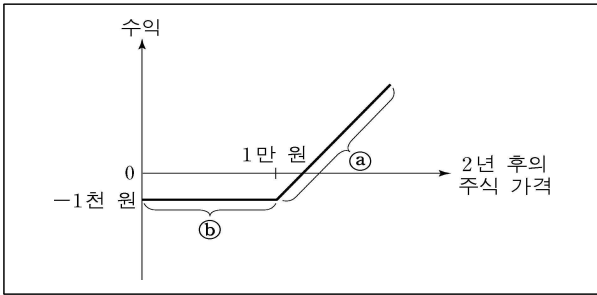
###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2.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3.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② ㉡은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④ ㉡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 ㉠와 ㉡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 ②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 ③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 ④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 ⑤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답] ②**

정답해설 : 이 글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옵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옵션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옵션은 반드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해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②는 이런 옵션의 특징을 그대로 잘 살려 쓴 내용이다.

[오답피하기] ① 주식 옵션은 일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살 수 있다.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미래 정해지는 것이고, 그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이 글의 서두 부분에서 옵션이 금융상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옵션 프리미엄은 나중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옵션을 처음 살 때 지불하는 돈이므로 옵션을 행사한 후에 갖는 것이 아니다.

**2. 추론적 사고(상황의 이유 파악) [답] ⑤**

정답해설 :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수확기에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옵션 개념이다. 본문의 논리대로 이 옵션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풍년이 들어 압착기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압착기 임대료가 올라가면 탈레스는 자신이 지불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압착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으므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나 흉작이 되면 압착기를 빌리려고 사둔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압착기를 빌리기 위해 지불한 돈만 날리게 될 뿐 더 큰 손해는 없기 때문이다. 즉, 압착기를 빌려줌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료가 자신이 압착기를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3.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답] ③**

정답해설 : A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보기>의 그래프에 적용시켜 보는 문제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그래프에 정확히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⑥와 ⑦가 보여주는 상황을 통해 옵션을 행사할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⑥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었을 때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1만 원 이전의 구간인 ⑥에서 옵션을 행사했다는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⑥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겨야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울기를 지니고 있다. ②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게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⑥를 토대로 본다면 손실은 처음 투자한 금액인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옵션 프리미엄을 구입할 때의 가격이 일단 묶여 있는 것이므로 ⑥는 0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⑤ 옵션으로 인한 수익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지만, 옵션으로 인한 손해는 1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옵션이 지닌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⑥는 소득이 무한정 증가할 수 있음을, ⑥는 손해가 1000원 이상을 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추론적 이해(중심 내용의 파악) [답] ②**

정답해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제시하는 것은 경영자가 옵션을 지님으로써 옵션 관련 사업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주식 가격의 상승을 적극적으로 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경영자들이 자신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답은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노동자의 복지 증진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③ 경영자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 사업의 안정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영자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 사업의 다각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경영자의 사회 공익에 대한 언급은 없다.

## ■ [EBS 선별2] 수능특강 93P : 효율적 시장 가설

‘효율적 시장 가설’은 1900년대 처음 제기된 후, 1960년대 시카고 대학의 파마 교수에 의해 이론적으로 발전되어, 현재까지 금융 시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때 ‘효율적 시장’이란 합리적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으로, 시장에 유입된 정보가 즉각적으로 재화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이론에 가깝게 작동되는 시장으로는 주식 시장이 있다. 주식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면, 시장에 알려진 정보가 즉시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는 항시적\*으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에 이미 알려진 정보를 이용한 투자 방식이나 전략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 시장에 유입되는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하는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즉시 반영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실증적 함의를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 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파머는 효율적 시장을 시장에 유입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약형 효율적 시장이다. 이 시장은 유입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로 한정되는 시장이다. 즉 현재의 주식 가격이 과거의 정보, 다시 말해 과거의 주가, 주식 수익률, 거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주식과 관련한 과거의 정보만으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주식과 관련한 현재의 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 정보, 사적 정보를 통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는 유입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 공적 정보란, 주가, 주식 거래량 등의 정보는 물론 주식 발행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이익, 배당, 노사 관계, 연구 개발, 투자 등 현재까지 일반에 공개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공적 정보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를 이용해야만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형 효율적 시장은 약형과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들은 물론 기업의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와 같이 일부 시장 참여자만 취득이 가능한 정보까지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장이다.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주가에 항시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로도 초과 이익을 취할 수 없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강형 효율적 시장은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우며, 현실에서는 시장의 유형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주식 시장에 정보가 반영되는 시간도 주식 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가 시장에 유입되더라도 그것이 시장 전체에 전파되는 시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것이 주식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1980년대 미국의 주식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공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5분 정도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IT 기술이 발전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새로운 정보가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파급된다. 이처럼 공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 주식 시장은 더욱 효율적 시장에 가까워진다. 아울러 시장의 거래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어 시장 참여자들이 각종 정보에 공평하고 쉽게 접근하면 시장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진다.

주식 시장이 강형 효율적 시장이 되면 주가는 기업의 진정한 본질적 가치를 항시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에 투자자가 주가를 기준으로 투자하면 우량 기업에는 보다 많은 자원이 유입되고 비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이 적게 유입되거나 유출되어, 시장의 힘에 의해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금융 시장과 관련하여 학문적,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 항시적: 언제나 늘 있는. 또는 그런 것.

\* 초과 이익: 기업의 규모 업종에 따라 예상되는 평균적, 전형적 이익인 정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주식의 경우, 그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성과를 뛰어넘는 이익을 의미하며, 우연히 실현되는 이익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실현되는 이익이다.

## ■ [읽어읽기] 교육청 기출 - 주식거래표, 주식차트 (2011학년도 7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이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 주식이다. 기업은 주식의 발행을 통해 기업 운영의 자본금을 마련하고, 이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 즉 주주들은 기업 운영을 통해 거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이 주식은 금융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해당 기업의 과거 실적에 근거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그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주식거래를 할 때 살펴보는 기본적인 자료에는 주식거래표와 주식 차트가 있다. 주식거래표에는 현재가,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전일비, 액면가 등이 표시되어 있어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 현황 및 가치와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현재가'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말하고, '시가'는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각의 가격, '종가'는 시장 마감 시각의 가격이며 주식 시장이 마감한 후에는 '현재가'를 '종가'로 본다. '고가'는 하루 중 해당 주식의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저가'는 가장 낮았을 때의 가격을 말한다. '전일비'는 어제의 종가에 비해 오늘의 현재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금액으로 보여주고 '등락률'은 그것을 비율로 보여준다. '액면가'는 주식 시장에 처음 상장되었을 때의 주식 증권에 표시되어 있던 가격을 말한다.

또한 상장주식수, 시가총액, PER 등도 표시되어 있는데 상장주식수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해당 기업의 총 주식 수를 의미하며 이 상장주식수와 현재가를 곱한 금액이 '시가총액'이 된다.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은 시장에서 평가받는 해당 주식의 가격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PER가 낮다면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PER가 높다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주식 차트는 일정기간 주식 가격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차트에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주식 차트는 하루나 5일, 60일 등 다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다. 주식 차트의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 가격을 평균화해서 만든 선으로, 주식 가격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주식 차트에 표시되는 '거래량'은 주식이 거래된 양을 보여준다. 주식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량의 변화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도 한다.

주식거래표나 주식 차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상승하리라 믿었던 주식의 가격이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매매는 신중해야 한다.

### 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거래량으로 해당 주식의 가격 동향을 예측할 수 없다.
- ②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현재가의 차가 크면, 등락률도 크다.
- ③ 상장주식수를 통하여 당일 주식의 총 거래량을 알 수 있다.
- ④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에 변화된 시가와 종가의 합이다.
- ⑤ 저가에서는 주식이 적게 거래되고, 고가에서는 주식이 많이 거래된다.

○○전자		2011년 7월 13일(수) 시장 마감 이후	
현재가(원)	50,000	시가(원)	49,000
전일비(원)	▲1,000	고가(원)	55,000
등락률(%)	2.04	저가(원)	48,000
거래량(주)	50	액면가(원)	5,000
상장주식수(주)	100	PER(배)	2.5

(단, ▲는 상승을 의미함.)

2. 다음은 ○○전자의 주식거래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표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의 전일 총가는 49,000원이군.
- ② '○○전자'의 시장 마감 이후 주식의 가격은 50,000원이군.
- ③ '○○전자'가 시장에 처음 상장되었을 때의 주식 가격은 5,000원이었군.
- ④ '○○전자'의 일주일 전 시장 마감 직후의 PER가 2라면, 지금의 주식은 그때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군.
- ⑤ '○○전자'의 액면가 5천원에 상장주식수 100주를 곱한 가격인 50만원이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군.

3. ㉠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회사의 제품을 추천하였다.
- ② 의사의 조언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해 수영을 시작하였다.
- ③ 다소 비싸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구매하였다.
- ④ 최근 5년간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에 진학하였다.
- ⑤ 화려한 디자인의 옷보다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물하였다.

1. 정답 [2]

2문단에서 어제의 증가와 오늘의 현재가의 차이의 값이 '전일비'이며, 이 전일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등락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제의 증가와 오늘의 현재가의 차이가 크면 등락률은 크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2. 정답 [5]

'○○전자'의 시가총액은 기업의 총 주식수(상장 주식수)인 100에 현재가인 50000을 곱한 500만원이 된다는 것을 3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3.정답 [4]

㉠은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최근 5년간의 취업률은 대학의 과거 실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 ■ [EBS 선별3] 수능특강 101P : 마케팅 활동

기업은 자사가 만든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기업이 주력하는 마케팅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제품의 판매 단계에 대한 전략’, ‘유통에 대한 전략’, ‘촉진 방법에 대한 전략’ 등이 있다.

‘제품의 판매 단계에 대한 전략’은 제품의 생명 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이다. 첫 번째 단계인 도입기는 제품이 시장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시기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홍보에 집중하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인 성장기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 판매가 늘어나 이윤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마케팅 비용이 도입기에 비해 감소하지만 제품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비용이 여전히 많이 들게 된다. 이 시기는 다른 기업들이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특정 업체에 독점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경쟁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판매 경쟁이 치열해진다. 따라서 경쟁 업체 제품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품 차별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성숙기는 제품 판매량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그에 따라 마케팅 비용도 이전보다 적게 드는 시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제품 구매를 경험했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 줄어들면서 판매 성장 속도가 느려져 이윤 증가의 폭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경쟁 제품보다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성장기에 실행했던 제품 차별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쇠퇴기는 제품과 관련된 시장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제품 판매가 줄어들어 이윤이 감소하고 시장에서 제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재고 처리를 위한 판촉 행사를 병행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해야 한다.

‘유통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이다.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제품을 제조해도 제품을 전달하는 통로가 부족하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전통적으로 소매업자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던 소비자들이 요즘엔 인터넷이나 홈쇼핑, 모바일 쇼핑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구매처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 유통 전략을 세우게 된다. 유통 전략은 크게 집중적 유통 전략, 선택적 유통 전략, 배타적 유통 전략으로 구분된다. 집중적 유통 전략은 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소매점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전략으로 주로 구매 빈도가 높고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제품의 경우에 사용된다. 선택적 유통 전략은 여러 제품을 진열하여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전략으로 구매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제품의 특성이나 가격이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사용된다. 배타적 유통 전략은 집중적 유통 전략과 반대로 소수의 특정 판매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고급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으로 주로 보석류, 고가 화장품, 고급 의류 제품 등을 판매 할 때 사용된다.

‘촉진 방법에 대한 전략’은 제품 판매를 위해 잠재적 구매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이다. 기업이 잠재적 구매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은 광고나 홍보, 판촉, 그리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대인 판매 등이 있다.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주로 광고와 홍보, 판촉 등을 사용하고 산업재\*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주로 대인 판매의 방법을 사용한다. 촉진 방법에는 풀 (pull) 전략과 푸시(push) 전략이 있다. 풀 전략은 소비자들 사이에 제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해 소매상으로 하여금 중간 도매상에게 제품을 구비하도록 압력을 넣게 하고 중간 도매상은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요구 하게 하는 방법이다. 풀 전략은 소비자들 사이에 수요를 촉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비자 광고와 홍보, 판촉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는 대중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거나 식품 매장에서 무료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것 등이 이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유통 경로상 가장 가까이 있는 중간 도매상에게 제품을 판매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이다. 중간 도매상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매상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소매상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한다. 이 전략은 공격적 물량 공급을 통해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하여 소비자들이 가는 거의 모든 판매처에 제품을 진열해 놓고 그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푸시 전략은 중간 도매상에 대한 판촉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에 비해 대인 판매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에 따라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의 일방적인 물량 밀어내기로 인해 중간 도매상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 원자재, 부품, 설비, 기구, 소모품 등.

## ■ [EBS 선별4] 수능특강 117P : 판매 전략으로서의 묶어 팔기

‘묶어 팔기’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 파는 판매 전략으로, 묶인 제품들이 상품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결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묶어 팔기는 판매자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질 때 가능하다. 같은 상품을 각각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쟁자가 있다면 소비자가 굳이 묶어 파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묶어 팔기를 시도하는 궁극적인 동기는 이윤 극대화에 있다. 여러 상품들을 따로 팔 때보다 묶어 팔 때 판매자의 이윤이 더 커지는 이유를 살펴보자.

	커피	케이크
A	5,000원	7,000원
B	8,000원	4,000원

### <도표>

어떤 카페에서 커피와 케이크 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A와 B 두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각 상품에 대하여 두 사람이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유보 가격’이라 부르는데, 유보 가격이 <도표>와 같다고 해 보자. A는 케이크에 대해 B보다 더 큰 금액을 낼 용의가 있는 데 비해, B는 커피에 대해 A보다 더 큰 금액을 낼 용의가 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커피와 케이크의 생산 원가가 무척 낮아 많이 판매할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커피와 케이크를 따로 팔기로 결정한다면 커피의 가격은 5,000원으로, 케이크의 가격은 4,000원으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에게 커피와 케이크를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자의 총수입은 18,000원이 된다. 그런데 12,000원에 이 둘을 묶어 팔아 두 사람이 모두 구매하게 되면 총수입은 24,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예에서 묶어 팔기를 할 때의 수입이 따로 팔 때보다 더 커지는 것은 두 사람의 상품에 대한 선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 상품의 유보 가격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경우 판매자는 묶어 팔기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개별 상품에 대한 유보 가격의 합은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다. 만약 모든 소비자가 묶음 상품을 구매하게 하려면 가장 낮은 유보 가격의 합을 묶음 상품의 가격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판매자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결과가 빚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묶어 파는 상품의 가격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두 상품에 대한 유보 가격의 합이 묶음 상품의 가격보다 높은 소비자의 경우 묶음 상품을 구매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묶음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개별 상품을 따로 구매하게 만들어 판매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묶어 팔기도 하고 따로 팔기도 하는 판매 전략을 가리켜 ‘혼합 묶어 팔기’라고 한다.

묶어 팔기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상품을 따로 유통시킬 때보다 상품들을 묶어서 판매하게 되면 유통에 지불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도 묶어 파는 상품의 가격이 각각의 상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낮아져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으며,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탐색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묶어 팔기 판매 방식은 거래 강제 행위로 간주되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까지 강제로 구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 질서를 해친다거나, 새로운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상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거래 강제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독립적인 효용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상품이나 용역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을 때 거래 강제 행위로 판단하여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

한 판단을 할 때에는 거래상의 지위, 개별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판매 가격과의 관계, 연 계되어 있는 상품의 상호 보완성, 다른 형식의 거래에 대한 선택 가능성 등 소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시계와 시곗줄과 같이 2개 이상의 상품이 기능적·기술적 이유 또는 거래 관행상 동시에 결합되어 거래되는 경우는 부당한 것이 되지 않는다.

## ■ [읽어읽기(1)] 시장의 가격형성 원리

읽어읽기 자료 (배경어휘와 친해지기) [출처 : 오르비복스 '교과서독해']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에 도달한 상태를 시장 균형이라고 한다.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 균형 가격에서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자신이 원하는 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시장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가령 현재 시장가격이 2000원인 어떤 과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과자가 2000원일 때의 공급량이 100봉지인 반면 수요량은 60봉지라 한다면 시장에서는 60봉지만 거래되고 나머지 40봉지는 팔리지 않고 남게 될 것이다. 공급량이 100봉지이지만 수요량이 60봉지이므로 60봉지만큼만 거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 한다. 같은 원리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물건의 가격은 균형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하락하거나 상승하게 된다.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며 반대로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수요자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하락하거나 상승한다.

이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나 공급이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꽃 시장의 예를 가정해 보자. 졸업식이 다가오면 꽃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꽃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경쟁을 통해 꽃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꽃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즉 수요의 증가는 균형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균형 가격을 상승시킨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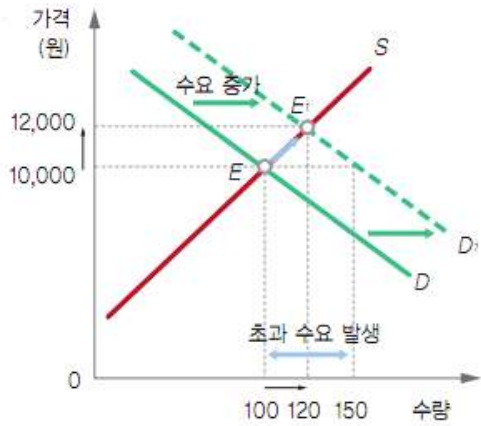
㉠ 수요의 증가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고 균형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수요의 감소는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고 균형 거래량을 감소시킨다).

이번에는 꽃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꽃을 재배하는 원예 농가가 늘어나면 꽃 시장의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격에서는 꽃 시장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이는 꽃을 팔려는 공급자들의 경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늘어난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줄어든다.

㉠ 공급의 증가는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고 균형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공급의 감소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고 균형 거래량을 감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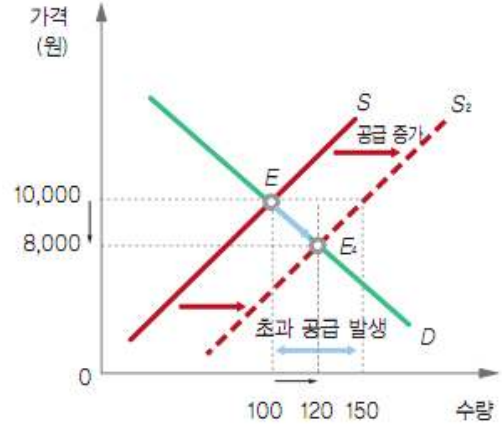
[수능국어 필수 어휘]

\* 수요자(需要者):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



(가)

(가) 졸업식 날 꽃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꽃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나)

(나) 꽃을 재배하는 원에 농가가 늘어나 꽃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

#### ↳ 개념 이해해보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나 공급이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꽃 시장의 예를 가정해 보자. 졸업식이 다가오면 꽃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꽃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경쟁을 통해 꽃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꽃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즉 수요의 증가는 균형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균형 가격을 상승시킨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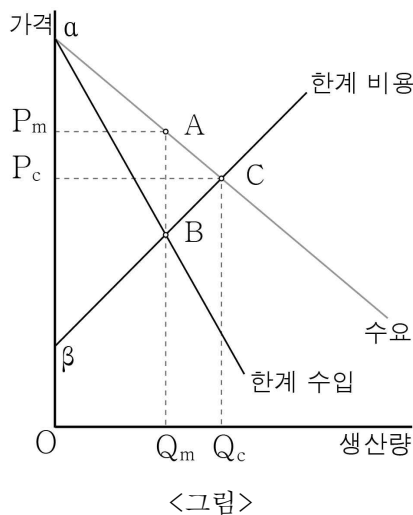
이번에는 꽃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꽃을 재배하는 원에 농가가 늘어나면 꽃 시장의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격에서는 꽃 시장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이는 꽃을 팔려는 공급자들의 경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늘어난다.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줄어든다.

## ■ [읽어읽기(2)] 교육청 기출 - 이부가격 설정 (2018학년도 3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낮아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금액보다 많아 얻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 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때에 비해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에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부가격설정'이란 어떤 상품에 대하여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다음, 상품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 기구 이용료를 생각해 보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 기구 이용료와 별도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받아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입장료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 매기면 다수의 소비자 자신이 이용을 포기할 것이고, 너무 낮은 수준으로 매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 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 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놀이공원의 입장료로 결정하여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이윤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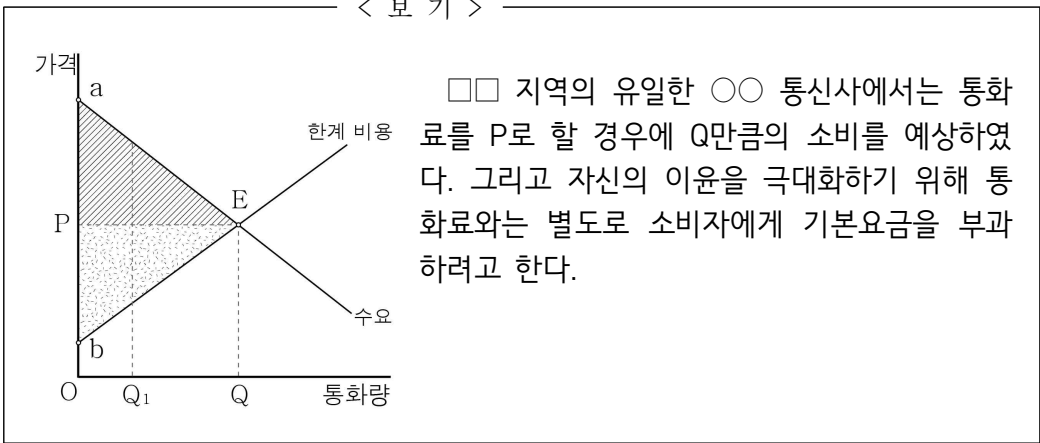
<그림>

㉢ 이부가격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도 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이때 총잉여는 극대화된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량은  $Q_m$ 이 되고 가격은  $P_m$ 이 되며, 생산자의 수입은 사각형  $OP_mAQ_m$ 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beta P_mAB$ ,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_m\alpha A$ 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다. 따라서 소비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적은 수량의 상품을 비싸게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부가격설정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Q_m$ 에서  $Q_c$ 로 늘리면 총잉여는 삼각형  $BAC$ 만큼 늘어나게 된다.

\* 한계 비용: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

\* 한계 수입: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판매했을 때 얻는 수입.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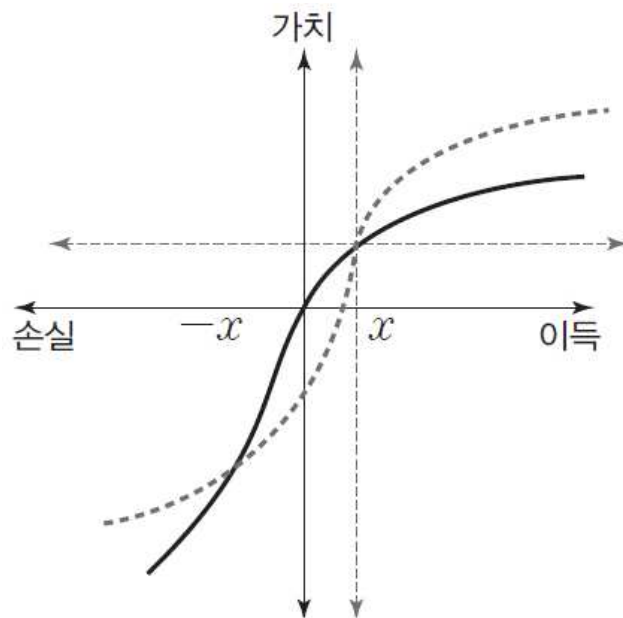
- ①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면 ○○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OaEQ에 해당할 것이다.
- ② ○○ 통신사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화량이 Q<sub>1</sub>일 때 통화료로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 ④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 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입은 사각형 OPEQ에 해당할 것이다.
- ⑤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 통신사의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aE에 해당할 것이다.

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산량이 늘어나 사회 전체로는 총잉여가 증가하는 것이겠군.
- ② 생산량이 늘어나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 ③ 생산량이 늘어나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생산자의 수입보다 커지는 것이겠군.
- ④ 생산량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구입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겠군.
- ⑤ 생산량이 줄어들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 [EBS 선별5] 수능특강 125P : 프로스펙트 이론

행동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선택 과정을 편집 단계와 평가 단계로 구분한다. 편집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준거점을 기준으로 선택 상황을 이득과 손실로 구분한다. 즉 상황의 틀을 어떤 선택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잃을 수 있는 손실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준거점은 절대적인 영점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형성된다. 이 준거점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만큼 얻는지 잃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객관적 가치의 절대량보다 그 변화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한다. 선택 상황의 편집이 끝나면 평가 단계로 들어간다. 평가 단계에서는 '가치 함수'에 기초하여 객관적 가치의 주관적 가치를, '확률 가중 함수'에 기초하여 객관적 확률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평가한다.



<그림>

<그림>은 정해진 준거점을 기준으로 한 이득과 손실에 대한 평가 함수인 가치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가치 함수의 S자 모양은 가치 판단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그가 생각하는 준거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은 준거점을 기준으로 이득이나 손실이 커지면 가치의 변화량에 둔감해진다. 이는 <그림>에서 가치 함수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것으로, 이를 '민감도 체감'이라 부른다. 민감도 체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득과 손실의 영역에서 위험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반면,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어떤 금액에 대해 인식하는 가치는 그 금액 자체를 나타내는 절대 가치와 다르며 준거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데, 이를 '준거점 의존성'이라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발생하는 약간의 이득에 대해서는 그 값의 절대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고, 큰 이득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그 값의 절대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손실의 경우에도 처음 혹은 약간의 손실에 대하여 그 값의 절대 가치보다 크게 인식하지만, 손실이 매우 큰 경우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상대적으로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에서 손실 영역에서의 함수 기울기는 이득 영역에서의 함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손실에 대한 평가 가치가 이득에 대한 평가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가령 동일한 만 원이라도 만 원이 생겼을 때보다 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손실감이 상



대적으로 크다. 이는 사람들이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하는데, 이를 ‘손실 회피성’이라고 한다.

가치 함수와 더불어 프로스펙트 이론의 또 다른 축은 확률 가중 함수이다. 사람들은 확률을 객관적 수치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석한다. 어떤 확률이 작을 때는 가중치를 부여해 실재값보다 크게 인식하는 반면, 중간 정도이거나 그 이상의 높은 확률은 실재값보다 작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복권을 경쟁적으로 구입하는 일이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0퍼센트가 아니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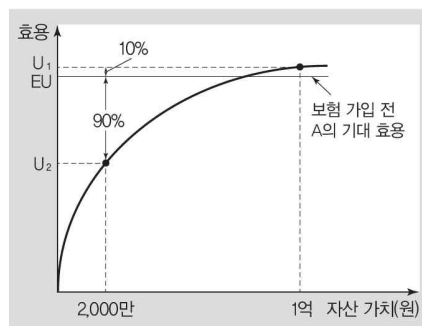
리처드 세일러는 프로스펙트 이론을 응용하여 여러 개의 결과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부호화하여 처리하는지에 대한 쾌락적 편집 규칙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은 여러 개의 결과가 있을 때 이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득 또는 손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개개의 이득 또는 손실로 볼 것인지 결과들을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부호화는 사람들의 주관적 반응을 보다 좋게 하는 방향, 즉 이득은 보다 크게, 손실은 보다 작게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상품을 구입하여 두 개 이상의 사은품을 받을 경우 사은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은품을 받은 후에 별도의 사은품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서 얻는 주관적 가치가 크다. 첫 번째 사은품의 가치를 느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준거점이 이동한 상황에서 다시 추가 사은품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수 이득의 분리 법칙으로, 복수의 이득은 효용이 크도록 분리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손실이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 손실은 하나로 통합하라는 복수 손실 통합의 법칙이 효과적이다. 신용 카드사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손실을 매번 느끼지 않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금액은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결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이득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면 손실을 상쇄시켜 이득만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가령, 복권에 당첨되어 10만 원을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8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할 때, 두 사건을 통합하여 그냥 2만 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덜 속상하다. 이것이 이득과 손실 통합의 법칙이다. 그런데 아주 큰 손실로 매우 실망한 상태에서 발생한 약간의 좋은 일은 희망이 될 수 있으므로, 손실에서 이득 금액을 뺀 것만큼을 손실로 간주하기보다는 이득과 손실을 분리해서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이득과 손실 분리의 법칙인데, 이 법칙은 손실과 이득 간의 차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이득과 손실에 관련된 여러 개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로 발생하는 금액이 같아도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함수의 값은 달라진다. 위와 같은 통합과 분리의 방식은 사람들이 복수의 이득과 손실을 어떻게 부호화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관적 반응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프로스펙트 이론을 응용한 전략은 사은품을 이용하는 판촉 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프로스펙트 이론은 소비자가 어떠한 준거점을 설정하도록 상품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의사 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마케팅적 시사점을 보여 준다.

## ■ [EBS 선별6] 수능완성 74 : 기대 효용과 보험 계약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경제 주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가 1억 원이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8,000만 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하자. 이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주택의 가치는 1억 원이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의 가치는 2,000만 원이 되어, A는 앞으로 자신의 주택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고 할 수 있다. 보험이란 보험 회사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대신 가입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받는 계약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한 경제 주체는 보험 가입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한 상황으로 ㉡바꿈으로써 효용(utility)\*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보험 회사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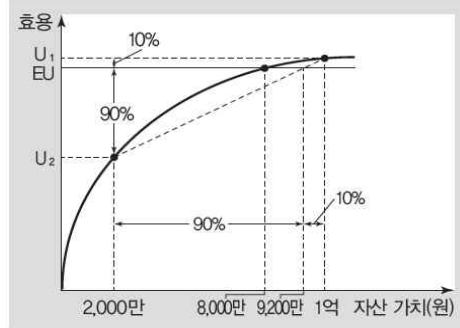
〈그림 1〉

A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10%이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효용이  $U_1$ , 화재가 발생할 때의 효용이  $U_2$ 라고 하자. 이처럼 주택 가치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A의 효용은 화재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A의 효용은 화재 발생 확률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불확실한 현재 상태의 효용은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의해 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효용들을 가중 평균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기대 효용 (expected utility, EU)’이라고 한다. 이 값은 <그림 1>에서  $U_1$  과  $U_2$  사이의 길이를 1 대 9의 비율로 나누는 지점인  $EU (= 90\% \times U_1 + 10\% \times U_2)$ 에 표시된다. 따라서 화재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면 EU의 크기는 현재보다 작아질 것이다.

불확실한 현재 상황에서 A가 화재 발생 시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자. A는 얼마의 보험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발생 시 손실액 8,000만 원을 보상받는다면, A의 주택 가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 보험료’이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2,000만 원 - 보험료 + 8,000만 원’이므로, 보험 가입 이후 A의 자산 가치는 화재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1억 원 - 보험료’가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 이후 자산 가치인 ‘1억 원 - 보험료’로부터 얻는 효용이 보험 가입 이전 A의 기대 효용인 EU보다 크다면 A는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있다.

보험 가입 전 기대 효용인 EU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주택 가치가 <그림 2>에서와 같이 8,000만 원이라면, A는 보험료로 최대 2,000만 원을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A가 8,000만 원을 확실히 보장받는다면 보험 가입 전과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의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보장하는 확실한 금액을 ‘확실성 등가액’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A가 매기는 주택의 주관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확실성 등가액의 크기는 A가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얼마나 기피하는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A가 소유한 주택의 객관적 가치는 A의 위험에 대한 기피 정도와 상관없이 객관적 화재 발생 확률에



〈그림 2〉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객관적 가치는 각 상황에서의 주택 가치를 각 상황의 발생 확률로 가중 평균하여 구한 주택 가치의 '기댓값'이 된다. 90%의 확률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주택 가치인 1억 원과 10%의 확률로 화재가 발생할 때의 주택 가치인 2,000만 원의 기댓값은 <그림 2>에서 자산 가치 1억 원과 2,000만 원을 1 대 9의 비율로 나누는 지점인 9,200만 원(= 90%×1억 원+10%×2,000만 원)이다. 즉 화재 발생 확률을 고려한 주택의 객관적 가치는 9,200만 원이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 주택의 가치인 1억 원과 화재 발생을 고려한 주택의 객관적 가치인 9,200만 원의 차이, 즉 8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받는다면 보험 계약 전보다 순이익이 증가하므로, 보험을 제공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A와 보험 회사는 최대 2,000만 원과 최소 800만 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고 화재 발생 시 손실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각각 이전보다 효용과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효용: 경제 주체가 자신의 경제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주관적 만족.

## ■ [읽어읽기] 교육청 기출 - 정보탐색 (2010학년도 10월)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 보면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게가 모여 있으면 경쟁이 치열해져 상품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게들이 모여 있으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어 오히려 이익이다. 그렇다면 모여 있는 가게가 단독으로 있는 가게보다 어떻게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일까?

상품에 대한 정보 없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입하려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고, 이 정보를 통해 편익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편익이란 탐색 행위를 통해 같은 상품을 싼 가격에 사거나, 같은 값에 질이 더 좋은 상품을 구입하여 얻은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정량의 정보 탐색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살 때, 1만 원의 비용으로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해서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3만 원 싸게 구입했다고 하자. 소비자는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하여 2만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컴퓨터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던 소비자가 정보를 처음 얻게 되었으므로 이때의 이익은 크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또 1단위의 정보를 추가로 탐색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왜냐하면 정보를 더 얻을수록 상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현재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탐색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반해, 그에 따르는 추가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할 때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가하고 절약하는 돈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의 정보 탐색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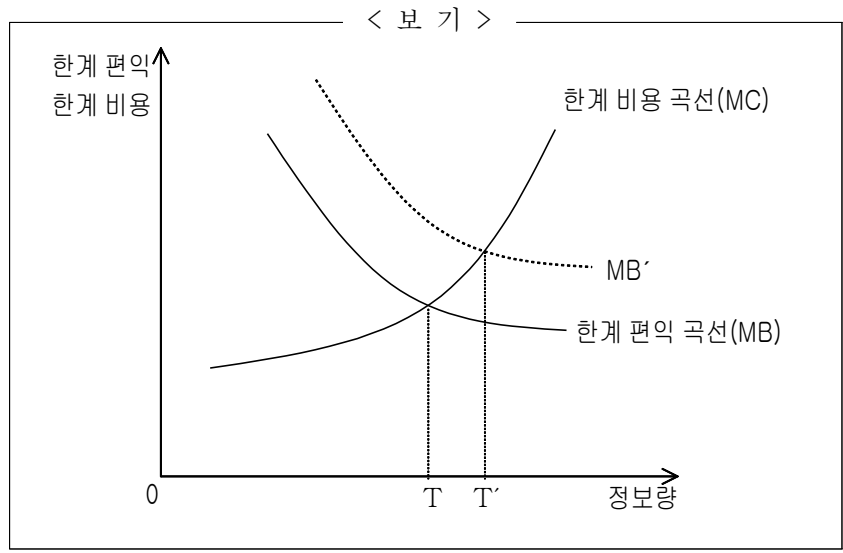
이렇게 정보 한 단위를 더 탐색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계 편익'이라고 하고, 이때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적절한 정보 탐색 행위의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정보 탐색 행위를 할 때 같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나 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가 모여 있는 곳이 같은 정보 탐색 비용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이 몰리게 되어 시장과 백화점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것이다.

### 1.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례 분석을 통해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현상과 관련된 사례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③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사례로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⑤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과 대비되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탐색 행위로 얻은 정보량이 T'일 때의 한계 편익은 정보량이 T일 때의 한계 편익보다 작다.
- ② T보다 적은 정보량을 지닌 소비자는 정보량이 T가 될 때까지 탐색 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 ③ 한계 편익 곡선 MB가 MB'로 이동하면 동일한 정보량으로 더 많은 한계 편익을 얻게 될 것이다.
- ④ 단독 가게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백화점을 이용하게 되면 한계 비용 곡선 MC는 왼쪽 위로 이동하게 된다.
- ⑤ 동일한 비용으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 한계 편익 곡선 MB는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된다.

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편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②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③ 정보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정보를 추가 탐색하면 정보 과잉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⑤ 정보 추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정보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1. 정답 [1]

이 글은 컴퓨터 구입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더 많은 상품이 판매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2. 정답 [2]

단독 가게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백화점을 이용하면, 한 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탐색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한계 비용 곡선 MC는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3. 정답 [5]

정보를 추가로 얻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이 정보를 통해 절약할 수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과 같이 정보 탐색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의 이유는 정보 추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정보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 ■ [참고자료]

참고자료 - 인플레이션, 금리, 화폐가치 [출처 : 오르비북스 '교과서독해']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국민 경제의 전체적 수요가 늘어날 때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발생한다. 경기가 \*호황이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가 늘어난다. 이때, 기업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뒤따르지 못하면 공급이 어려워져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늘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국민 경제가 활발할 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총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민간소비나 민간투자의 증가, 정부지출의 증가, \*통화량의 증가, \*금리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

❧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원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한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한다. 원유와 같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가 따라 올라가고, 이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즉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총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총 공급의 감소 요인으로는 임금, 시설, 원자재 등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 물가 상승 현상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같지만, 국민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한다.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원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이 줄어들어서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첫째, 국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가계는 저축을 줄일 것이고, 기업 또한 장래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 결과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게 되어 장기적이고 건전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1): 국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

둘째, 부와 소득의 불공평한 재분배가 일어난다. 물가가 오르면 \*실물의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 때문에 실물을 소유한 실물 자산 소유자들이 화폐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유리해진다. 실질 이자율 또한 하락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유리해진다. 실질 이자율의 하락으로 빌린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일정 금액의 월급이나 연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월급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이 유리해진다.

❧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2): (채권자), (화폐 자산 소유자), (월급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불리해진다.

셋째,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환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수출이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수입이 늘어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 수지를 악화한다.

❧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3):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 수지를 악화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이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요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국민 경제의 전체적 수요 증가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국민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먼저 민간소비의 증가는 총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가계는 과소비나 대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해결책: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발생 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정부는 (긴축 정책)을 편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생산비 증가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기업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용 인플레이션의 경우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 경기침체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임의로 억제하면 그만큼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어 실업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발생 시 기업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국민 경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기업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다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디플레이션의 심각성: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수능국어 필수 어휘]

- \* 화폐가치: 상품에 대한 화폐의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가치는 상승한다.
- \* 호황(好況): 생산이나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 불황의 반대 개념
- \* 총수요: 한 나라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가계+기업+정부+외국<수출>)를 모두 합한 것
- \* 총공급: 주어진 기간 동안 국가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GDP+외국<수입>)의 총합
- \* 통화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유통량      \* 금리: 돈을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율
- \* 투기: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
- \* 실물(實物): 주식이나 상품 따위의 현품
- \* 채무자(債務者): 돈을 빌린 사람      \* 채권자(債權者): 돈을 빌려준 사람
- \* 자영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 \* 경상수지: 기업의 경우 통상의 영업 활동에서 계속적으로 생기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이른다.